

革命前後의 出版動向

申 在 永

우리는 항상 출판은 문화의 척도(尺度)이니 민족문화를 선양하는 가장 보편적(普遍的)이면서 영속성 있는 문화사업이라고 하며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서는 당국의 적극적인 원조와 일반 독자의 독서열이 부수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한다.

우리가 광복후 국민의 삼대 자유의 하나인 출판의 자유를 바로찾은 이래 허다한 난관과 애로를 극복해가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동안 동업자간의 무모한 경쟁 비양심적인 서적출판 출혈출판등 불미스러운 점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많았음은 또한 자인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출판계가 가지고 있는 표면상의 현상에 지나지 않을뿐 그 밑을 더듬어보면 우리만이 지니는 각박(刻薄)한 풍조(風潮)가 흐르고 있음을 알 것이다. 그것은 출판이란 항상 그 시대상(時代相)을 예민하게 묘사할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문화를 이룩하고 보존하고 보도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선창자(先唱者)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척필(言則必) 반만년 역사물 이어 찬란한 5천년문화이니 하며 떠드려대지만 그 홀려간 5천년간의 고전문화를 우리현대문화로 또는 신활자로 재등장(再登場)시킨 부분이 과연 몇 푸르나 될 것이며 또한 출판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재(文

化財)의 창조 또는 육성 다시말하면 저술가를 육성발굴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한 후원과 대우를 하였는가? 이것은 우리 서적계만이 책임져야할 문제는 아니며 후진사회에서 흔히 있을수 있는 출판의 완전한 기업화(企業化)가 되어있지 않기에 문이다. 문화적인 완전한 자본축적(資本蓄積)이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어떻게 출판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출판계가 6·25사변후 일시적 현상이나마 서적판매율이 호전되었을 때부터 종래 각사에서 경쟁하다 싶이 쏟아져나오든 각급학교 교재중심의 서적출판을 지양하고 출판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여 사회각부문에 걸친 서적들이 속속 간행되어 제법 표면상으로나마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일반 독자들도 휴전(休戰)후 몇년 뒤부터는 마음의 안정도 어느정도 얻어 독서에 대한 열이 점차 높아져서 서적판매상은 활기를 띄어 이당시 학원사(學園社)의 「백과사전」, 민중서관 「한국문학전집」, 양문사 「양문문고」, 동국문화사의 「한국야담사화전집」이 나오기 시작하여 각출판사에서는 일제히 경쟁하다 싶이 전집간행에 주력을 두었다.

이 당시는 상기한 바와같이 인심의 한정과 더불어 독서열뿐만 아니라 장서열(藏書熱)도 대단하여 이들 전집물이 어느

정도는 소화되었으나 일부에서는 구독자의 팽발 월부수금의 부진등으로 의외의 피해를 입은 출판사도 허다하였다.

이 전집(全集) 붐이 4·19 학생 의거후 각기관의 대폭적인 인사이동 일반경제 상태의 혼란등으로 그 위세가 속으러져자 대가나 하고 있었듯이 일본서적의 번역물이 대량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현상은 오랫동안 막혔던 일본과의 교류(交流)가 부분적이나마 트이면서 광복후 10여년간 보지못하였던 일인(日人) 작품에 대한 호기심이 앞섰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중 「인간의 조건」 같은 책은 사면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나 대부분은 번역자의 불성실(不誠實)과 소재(素材) 선택의 졸렬등으로 독자들한테서 그리 달가운 환영은 못받았다.

이 당시는 몰지각(沒知覺)한 일부학생층의 정치운동과 학원내의 분쟁등으로 우리 독서층의 다대수를 찾아하는 학생이 전혀 독서열을 상실하다싶이 되었기 때문에 대학교재도 예년에 비해서 그 소비량이 3할정도 밖에 안되었으니 일반서적의 소비량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까지도 전부터 월부판매되어 오던 전집물은 계속 보급되었으나 독자는 4·19 전에 비해서 격감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각기관의 인사이동이 빈번하여 수금이 여의치 못하여 각 출판사의 출력이 막심하였다.

그러나 일반 출판사들은 이 침체된 상태를 타개하고자 건실한 출판물을 구상하여 각방면의 전집서적을 계속 추진하였다.

1961년을 맞이하여 서적계에서는 신학기를 전후하여 활발한 출판계획을 세웠으나 5·16의 군사혁명이 이룩되어 사회전체에 걸친 일대 개혁이 일어나 각 업계는

거의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서적계는 호경기(好景氣)하에서도 가장 둔(鈍)하게 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불경기 하에서는 가장 예민하게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불경기라고는 하지만 일서(日書) 번역물은 계속 쏟아져나왔고 연말의 각종 고시종류의 서적이 대량 간행되어 이해의 출판물 총수는 2천2백90종에 달하였다. 이 중에 대학수험용 학습도서가 4백40종으로 전체 출판량의 20%를 차지하여 수위를 점하고 문예도서가 423종이며, 사전류가 221종 법정(法政)관계 163종, 종교 140종, 어학 104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같은 집제로 볼때 우리 출판계가 상업주의에 경주되었다고도 일견 말할수 있으나 전집류(全集類)의 간행이 증점적으로 반감되어 어려운 사정하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출판계로서는 큰 수확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대략 지난해의 특기할 출판물을 더듬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용섭(李龍燮)저 「佛敎辭典」, 정기문(鄭基文)저 「韓國魚類圖鑑」, 진단학회편 「韓國史」, 최현배(崔鉉培)저 「한글갈」, 을유문화사와 정음사의 「世界文學全集」, 이 밖에 특기할 것은 장년도에 들어서 뚜렷한 출판경향이 있으니 이는 역사류와 전기류(傳記類)라 하겠다.

동국문화사의 「韓國全史」중, 김상기저(金庠基著) 「高麗時代史」, 이상옥저(李相玉著) 「說話韓國歷史」, 동국문화사 「韓國野談史話全集」, 을유문화사 「韓國歷史小說全集」 및 「플르타크英雄傳」 그리고 사상계사의 「世界思想家叢書」, 여원사 「世界七十人集」등을 들수있다.

이 외에도 각종 가치 있는 출판물이 수

백종 나왔으나 판매율은 극히 저조였다. 특히 이해의 특징으로는 혁명정부의 과감한 시책을 출판등록규정을 개정하여 무질서했던 출판계를 재정비하여 허다한 유명 출판사가 정리되었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조치하에 남게된 출판사수는 불과 4백여사에 지나지 않았다. 금년에 들어서도 종래의 「전집」들은 여전히 활발하여 계속 전집과 사진류를 내어 아필해 보려고 기도하고 있다.

동국문화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現代長篇小說全集」(28卷)을 비롯하여 「世界大思想全集」全50卷을 추진하고 있으며 新太陽社에서 「中國史話全集」(全20卷), 正晉社 「世界大思想全集」(全30卷) 「韓國少年少女全集」(全50卷), 「世界文學全集」(後期20卷), 「世界文學巨作全集」(全10卷), 乙酉文化社 「韓國古代小說全集」(全20卷), 「新作文學全集」(全12)卷, 學園社 「農業大辭典」 「世界文藝辭典」, 民衆書館 「아동문학전집」, 啓蒙社 「세계아동명작전집」, 國民音樂研究會 「世界音樂大全集」(全80卷) 등이 속속 간행되기 시작했다.

특히 금년들어 주목할 것은 작년도에는 각기관 인사이동에 따르는 각급체용시험문제집이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작년말경부터 금년초에 걸쳐서는 정부의 농촌부흥시책에 따르는 영농자금의 하달등 지금까지 도외시 되었던 농촌이 출판물 소비대상으로서 크게 크로즈얼 되었다.

각 유명무명의 출판사에서는 앞을 다투어 「농민문고」 「축산전서」 등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 반면에 집필대상자는 아직 우리의 현실로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 쟁탈전이 치열했으며 충실하고 양심적인 원고를 얻기란 대단히 어려웠다. 개중에는 외서(外書)를 번역해서 간

행하기도 하였으나 우리나라 농촌실정에 맞지않아 큰 환영은 못받고 있다.

정부의 5개년 경제계획에도 명시한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재건하려면 우선 농촌을 부흥시켜야만 되겠는데 이에 종래의 원시적인 농업방식을 지양하고 하루바삐 농업의 현대적인 기업화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며 농민의 지식수준을 높여 근대식 농업경영을 이룩해야 할것이다

농촌청년이 향토를 이탈하지 않도록 오락 시설은 못마련 할망정 한부락마다 도서관이라도 설치하여 그들의 천업(天業)인 농업을 진흥시키는데 커다란 의욕(意慾)과 희망을 갖도록 다량의 도서가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시 말하거니와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주석(柱石)이 되는 문화인에 대해서 위정자는 물론 일반으로부터 심한 천시와 학대를 받아왔는데 이문화의 척도(尺度)라고 할수 있는 출판은 특히 도외시 당했다. 출판은 우리의 문화재를 선양 보급시키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민상호간의 이해증진(理解增進)을 돕는데 있어서 출판의 위력을 능가할수 있을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불매 출판이야말로 일종의 문화의교관이라고도 할수 있지 않는가?

이와같은 중요한 출판이 부흥되려면 하루속히 국가적인 시책으로 보호육성을 해야 하며 예를 들어 「출판금고」의 설치, 도서관법의 공포 일반대중의 「독서환경의 조성(造成)」 감세(減稅), 악서출판의 단속등 허다한 과제가 놓여있다. 이것이 하루속히 이루어질때 우리나라 출판계가 올바른 궤도에 오르게 될것이다.

(東國文化社長)